

동경 헌혈 카페와 일본적십자사 GMP 시설 방문 단상

# 기쁜 마음으로 헌혈 할 수 있는 고품격 부대시설을 갖춘 동경 헌혈카페와 엄격한 혈액 품질유지 GMP 시설을 보고

글 : 상임감사 최명량

지난 5. 24(수)~5. 27(토) 4일간 한마음혈액원 원장, 전 임회장 및 혈액원 부원장, 상임감사, 노조간부 등 9명은 일본 선진국의 헌혈사업을 보기 위하여 일본 적십자사와 동경 시내 헌혈카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혈액제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혈액 품질관리 시설인 품질보증시스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우선 살펴보고 한마음혈액원에 갖추기 위해서이다.

5월 24일 첫날 아사쿠사와 롯폰기 힐스 전망대를 둘러보며 가이드로부터 일본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들었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2.5배인 1.26억 명이며, 일본 경제에서

대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 청년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급이 1만 원 수준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기보다 3~4개월 일한 후 해외에 나가 2~3개월간 여행하는 프리터족(Free+arbeiter·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마련하는 근로자)이 많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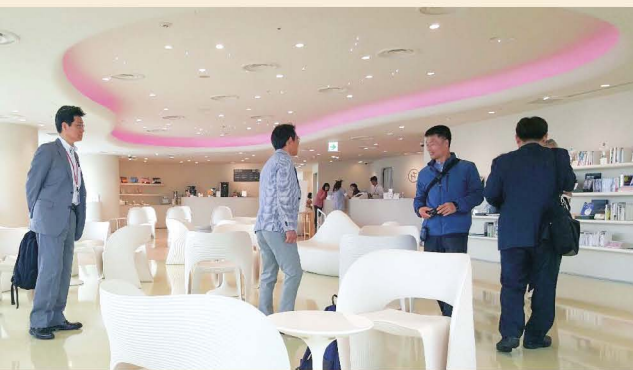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월 230~250여만 원으로 낮은 수준인데 집세 절반, 교통비, 통신비, 주차료 내고 매월 20~30만 원 용돈을 쓰면서 뼈다듯하게 생활하는 청년층이 많은 반면에 노인과 국가는 그런대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세난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만 부모로부터 일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을 받아 생활은 그런대로 풍족한 편이다.

반면 일본 등 다른 OECD 국가 노인층과 달리 우리나라 부모세대들은 그간 정치인들이 GDP 대부분을 수십 년간 도로 등 기간시설과 농어촌 특혜 자금으로 퍼붓다가, 1988년에 뒤늦게 시작한 30~60만 원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세컨드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약값 등 최소한의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비참한 노후생활이 우려된다.



아사쿠사 신사 앞



동경 한혈카페

첫날밤 호텔 숙소 인근 '이자카야(선술집)'를 찾아 일본 고구마 소주(25%)가 준마이 사케(13%)인줄 알고 잘못 주문했다. 마침 가이드에게 일본 음주문화에 대해 물어보니 일본인들은 대개 소주에 얼음과 물을 섞어 먹는 '미주와리' 한두 잔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건전음주로 일본이 최장수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

5월 25일 둘째 날 새벽, 일행들과 숙소를 나와 전철을 타고 1873년 일본 1호 공원으로 지정된 우에노 공원과 주변 호수를 산책 후, 택시를 이용해 숙소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니 이 개별 여행이 큰 추억이 됐다. 그날, 오전 도쿄 한혈카페를 방문해보니 하루 30여 명이 한혈하는 데 전용 150여 평의 밝고 넓은 규모(월 임대 3천만 원)를 갖추고 있어 놀라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의사 1명, 간호사 4명, 일반직 4명이 근무하며 커피숍, 도서대, 안락의자, 최고 전망 등 쾌적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도 있었다. 일본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고품격 카페 시설, 장비, 운영에 국가 예산지원은 없다고 한다.

우리도 지난 3월, 한마음혈액원 안산카페를 이전하며 80여 평(기준 40~50평)의 큰 규모를 갖추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모던한 카페 분위기로 변모시킨 이후 4월 한혈자 수가 1일 100여 명으로 늘어나 수도권 1위 한혈카페로 발돋움했다. 향후 한혈카페 장소 물색 시 임대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넓은 평수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모던한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한혈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해 '한혈자 만족에 중점을 두는 한혈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적십자사는 동경에 13개 헌혈 카페를 두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 인간 생명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월 1회 심폐 소생술 교육, 감염 세미나, 화재 예방, 구급법, 유아 안전법 등 강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억에 남는 행사로는 도쿄 시내 불꽃놀이 행사 시 한눈에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헌혈카페를 개방하고, 크리스마스 어린이 초청 이벤트·사진·미술전시회 등 전시장소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오후에 일본 관동 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했다. 나카지마 소장님 등 6인이 ‘혈액공급, 수급 관리 업무의 개요’ 등 한글판 안내자료를 만들어 브리핑해주었다. 열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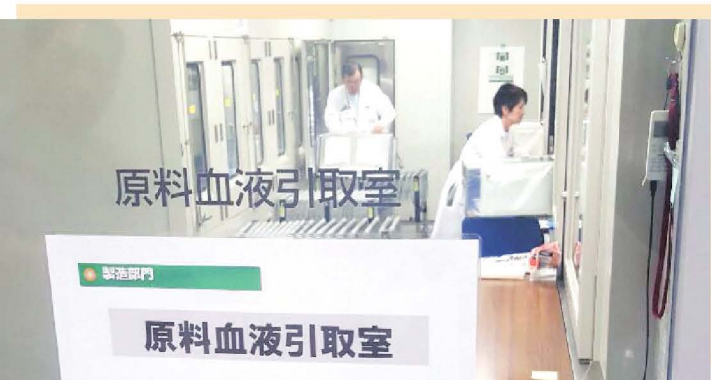
넘친 방문자들의 질의와 현지 전문 가이드가 어려웠던 ‘제재 공급’ 용어 등 통역이 쉽지 않았던 부분을 혈액원 황유성 원장님이 영어 동시통역으로 직접 나서 전문용어를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를 체험했다.

특기할 것은 직업별 남녀별 헌혈자 수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는 고교생이 80%를 차지하나 일본은 고교생 2%, 대학생·전문대생 6%, 공무원 13%, 회사원 57%, 자영업·주부 21% 등 40~50대 시민들 대다수가 헌혈하고 있고 젊은 층은 헌혈을 기피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교과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헌혈의 필요성 교육과 학생·군 헌혈 시 봉사 점수, 공가, 기념품 이벤트 등을 제도화한 것이 혈액확보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분들께 크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일본은 보조금, 기부금 지원이 미진한데도 혈액제재 병원 납품 정부 고시가가 우리보다 3~4배 높은 가격으로 납품, 연간 16조 원 상당 혈액 사업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마련했고 봉사적 헌혈 덕분에 저렴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구모 품질보증부장의 안내로 2층부터 7층까지 있는 채혈 후 검사 부분, 제재 부분, 수습관리 부분, 품질보증 부분의 대규모 GMP 시설을 견학하였다.

수혈용 혈액제재는 유효성, 안전성 관점에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품질규격을 확보,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이



헌혈백 입고 장면(외부차단)



관동적십자사 GMP 시설 사진



러한 우수한 품질의 혈액제제 등 의료품을 제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정해 규격에 적합하도록 일본은 'GMP 성령법'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 7월 일본 GMP 법령 시행에 따라 관동적십자사는 7층 규모로 동 시설을 구축했다고 한다. 법령은 2007년 11월 혈소판 제재의 유효기간을 혈액 채혈 후 72시간에서 4일간으로 변경했고, 2011년 4월 남성 전혈 채혈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쳤으며 남성에 한해 상한 채혈 연령을 54세에서 69세로 올리고 문진표도 14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2014년 11월부터 NAT 검사장비 여러 대를 로슈에서 노바티스 신형장비로 교체해 사용 중인데 한마음혈액원과 동일했지만 업그레이드된 신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예산의 풍족함에 부러웠다.

셋째날은 동경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일본인이 후지 산을 바라보고 즐긴다는 하코네 국립공원으로 이동해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모리유노 온천욕을 했다. 마지막 날엔 나리타 공항 인근에 있는 1000년이

넘은 나리타 신소지 사찰을 관람했는데 건축물이 간결하고 단순했고 정원이 잘 가꾸어졌지만, 우리나라 대자연 속에 있는 전통사찰의 비바람과 병충해를 보호하는 단청 등 멋지고 화려한 건축양식과는 대조적이었다.

마침 6월 15일, 한마음혈액원에서는 국방부의 협조로 軍 헌혈이 첫 출발했다. 국제 적십자사의 헌혈정신과 국가의 보건정책에 따라 우리 협회도 혈액 사업을 중부, 영호남권 지역으로 확대해 GMP 시설을 갖춘 혈액원과 품격 높은 고객존중의 헌혈 카페를 신설하고, 우수한 품질의 혈액을 제재해 안정적으로 병원에 공급하는 등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간의 공익적 헌혈운동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재공급 등 GMP 선진시설을 사진에 담아 혈액원 동료직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조성원 지부장의 열정적인 사진촬영 모습과, 후반기 혈액원 실무자들도 GMP 시설 2차 견학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혈액원의 앞날에 큰 희망을 보았다. 동경 견학행사를 주관해준 혈액원장님과 여행기간 웃음 가득했던 동료들의 배려에 감사한다. ☺

